

## 홍난파의 『쿠오 바디스』 번역 양상과 번역의 계보 고찰\*

윤 경 애  
(영남대)

###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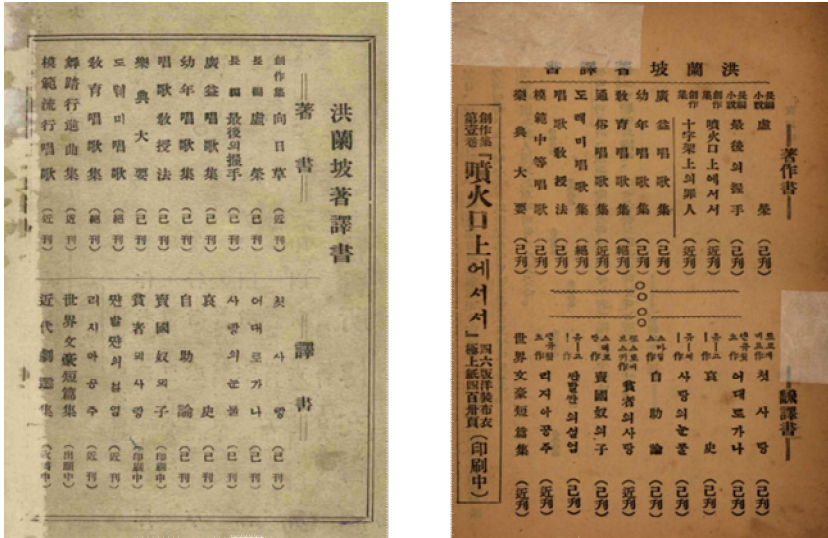
본 연구는 홍난파가 번역한 『쿠오 바디스』 번역서의 저본을 밝히는 서지연구를 중심으로, 원본에서 영어-일본어-한국어 번역으로 이어지는 번역의 계보, 저본과 한국어 번역본의 텍스트 비교를 통한 번역 양상과 특징의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sup>1)</sup> 홍난파(본명 홍영후)는 한국 최초의 바이올리니스트, 기악곡 작곡가, 음악평론가, 교향악단 지휘자로 폭넓은 활동을 하며 한국 근대음악을 개척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1037802).

1) 홍난파의 번역본은 시엔키에비치의 원본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영역본을 거친 일본어 번역본을 원천 텍스트(Source Text)로 한국어로 번역한 삼중역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시엔키에비치의 원본(Original Text)과 구분하기 위해 목표 텍스트(Target Text)인 한국어 번역본의 원천 텍스트로서 일본어 번역본 지칭할 때 ‘저본’으로 표기하였다. 또한 일본어 번역본을 목표 텍스트로, 그 원천 텍스트인 영어 번역본을 지칭할 때도 ‘저본’으로 표기하였다.

한 예술가로 평가받고 있다(김창욱 2002: 193). 하지만 홍난파가 1920년대의 대표적 번역가였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며 그의 번역서에 대해서도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1920년대 초반에 출판된 홍난파의 문학 저술은 <그림 1>의 저역서 목록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창작 4편, 번역 9편에 이르며 출판이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번역은 12편에 이른다.<sup>2)</sup>

<그림 1> 홍난파의 저역서 목록



저역서 목록의 작품 외에도 음악가와 그들의 작품에 대한 평론 등을 모은 산문집 『음악만필』(1938, 영창서관)을 집필하였고, 1915년부터 1940년까지 백여 편이 넘는 수필과 평론을 각종 신문, 잡지에 발표하였다(외솔희 1984). 이 가운데 출판이 확인된 단행본 및 신문, 잡지에 게재된 번역서 목록만을 정리하

2) <그림 1>은 『청년입지편-자조론』(1923, 박문서관)과 『매국노의 자』(1923, 회동서관) 뒤편 광고에 실린 홍난파의 저역서 목록이다. 번역서 목록에서 『리지아 공주』, 『세계문호단편집』, 『근대극선집』은 출판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김병철(1975)의 근대 번역서 조사로 『나나』(1924, 박문서관)와 신문, 잡지에 게재된 번역본이 확인되었다.

면 <표 1>과 같다.<sup>3)</sup>

<표 1> 홍난파의 번역서 목록

| 번호 | 제목               | 출판사          | 출판시기                        | 원작자    |
|----|------------------|--------------|-----------------------------|--------|
| 1  | 첫사랑              | 한일서점         | 1921                        | 투르게네프  |
| 2  | 어디로가나?<br>어대로가나? | 매일신보<br>광익서관 | 1920.3.20.-1920.5.5<br>1921 | 시엔키에비치 |
| 3  | 사랑의 눈물           | 박문서관         | 1922                        | 뫼세     |
| 4  | 부랑자              | 신천지 2권4호     | 1922.11                     | 모파상    |
| 5  | 애사               | 박문서관         | 1922                        | 위고     |
| 6  | 매국노의 자           | 회동서관         | 1923                        | 주더만    |
| 7  | 장발장의 설음          | 박문서관         | 1923                        | 위고     |
| 8  | 청년입지편-자조론        | 박문서관         | 1923                        | 스마일스   |
| 9  | 청춘의 사랑           | 신명서림         | 1923                        | 도스토옙스키 |
| 10 | 나나               | 박문서관         | 1924                        | 줄라     |
| 11 | 다복한 사형수          | 청년 6권2호      | 1926.2                      | 톨스토이   |

1960년대부터 한국 근대 번역서와 그 저본 및 원본을 조사, 연구한 김병철(1975: 690-691)은 김억을 질과 양에서 1920년대 번역문학에 가장 공적이 많은 번역자로 평가하면서도, 일본어 번역본을 바탕으로 번역한 중역(重譯)이지만 그 모두가 세계명작에 드는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홍난파의 작품 선정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1920년대의 대표적 번역가로 김억, 홍난파, 이상수의 생애와 활동을 연구한 박진영(2011: 61) 또한 홍난파를 1920년대 초반 최대의 전문 번역가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번역가로서의 홍난파와 그의 번역 활동을 소개한 연구로 박진영(2011, 2013)의 연구가 유일하며, 『매일신보』에 연재된 작품 연구로 이희정(2007)의 연구가, 그리고 단행본으로 발간된 소설 『허영』에 대한 연구로 이재춘(1989)과 강현조(2011)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번역가로서의 홍난파와 그의 번역 작품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에서 폴란드문학 번역사나 러시아문학 번역사 등 최근까지 진행된 근대 번

3) 홍난파는 일본유학 시절 창간한 잡지 『삼광』에 도스토옙스키의 「사랑하는 벗에게」(2호부터 「貧人」으로 제목을 바꿈)를 번역, 연재하였으나 잡지의 폐간으로 연재를 끝내지 못하고 1923년 단행본 『청춘의 사랑』으로 출간하였다.

역사 연구에서 홍난파의 번역 작품에 대한 평가는 김병철(1975)의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이하 『근대번역사연구』)의 평가를 정전과도 같이 인용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필자가 『근대번역사연구』에 저본 미상으로 되어 있는 홍난파 번역본의 일본어 저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홍난파 번역본의 저본으로 『근대번역사연구』에 기술되어 있는 일본어 번역본 대부분이 실제 저본이 아닌 다른 일역본으로 잘못 조사되어 기술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필자가 발견한 일본어 저본과 홍난파의 한국어 번역본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근대번역사연구』에서의 평가와 달리 번역 방법에서 문단과 문장, 어휘 수준에서까지 저본에 충실하게 축자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본 미상이나 틀린 저본을 바탕으로 한 『근대번역사연구』의 한국어 번역본 평가는 1920년대 중반까지도 대부분의 번역이 “번역문학의 정도상에 있지 않은 태도로 초역, 경개역, 번안, 의역 등 역자의 주관에 좌우되는”(김병철 1975: 690) 번역이었다는 잘못된 해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sup>4)</sup>. 더욱이 현재의 한국 근대 번역사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해석이 정전과 같이 인용되고 있는 만큼 『근대번역사연구』의 오류를 정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하에 먼저 홍난파의 『쿠오 바디스』 번역본인 『매일신보』 연재분 「어디로가나?」와 단행본 『어대로가나?』의 정확한 저본을 조사하여 밝히고 저본과 한국어 번역본의 비교를 통해 번역 양상과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 저본 조사를 위해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도쿄도립도서관, 와세다대학교와 게이오대학 등 일본 대학 도서관에서 1900년대부터 1920년까지 일본에서 번역된 『쿠오 바디스』 번역본을 조사하였고 문헌조사를 통해 찾은 6편의 일본어 번역본을 홍난파의 번역본과 비교하여 저본을 특정할 수 있었다. 3장에서 일본어 저본과 함께 한국어 번역 양상을 제시하고 4장에서는 텍스트 비교를 통해 홍난파의 번역본에 나타난 번역 방법상의 특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에 앞서 먼저 2장에서는 원본으로부터 영어번역-일본어 번

4) 초역(抄譯)은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서 번역한 발췌 번역, 경개역(梗概譯)은 줄거리만을 간단하게 추린 번역을 말한다. 단편 번역을 제외하고 개화기부터 1910년대 유행한 가정소설의 번역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중, 장편 소설은 주로 초역과 경개역은 물론, 등장인물과 배경을 당시 조선으로 바꾼 번안, 일부만을 번역한 부분역 등의 방법으로 번역이 이루어졌다.

역-한국어 번역으로 이어지는 번역의 계보를 제시하여 『쿠오 바디스』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이입되는 과정과 번역을 둘러싼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쿠오 바디스』 번역의 계보

### 2.1 『쿠오 바디스』의 영어 번역

홍난파가 『매일신보』와 단행본으로 발표한 「어더로가나?」와 「어대로가나?」는 헨리크 시엔키에비치(Henryk Sienkiewicz)(1846-1916)의 소설 『쿠오 바디스 네로시대 이야기(Quo vadis Powieść z czasów Nerona)』를 번역한 것이다. 『매일신보』에 연재하다 도중에 중단하였고 1921년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시엔키에비치는 『아메리카 여행에서 쓴 편지(Listy z podróży do Ameryki)』(1880)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 중, 단편 소설로 작가로서의 입지를 굳히지만 무엇보다 일련의 역사소설, 특히 『쿠오 바디스』를 통해 역사소설의 대가이자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다. 『불과 검(Ogniem i mieczem)』(1884)을 시작으로 『대홍수(Potop)』(1886), 『보워디웁스키 장군(Pan Wołodyjowski)』(1887-1888)이 연이어 성공하며 역사소설 3부작(Trylogia)이 완성된다. 17세기 폴란드가 코사크와 스웨덴, 터키 등과 맞서 싸웠던 영웅시대를 그린 역사소설 3부작은 시엔키에비치 문학의 정수로 손꼽힌다(최성은 2005: 128-129). 그리고 1896년 단행본으로 출간된 이후 오늘날까지 전 세계 오십여 개 언어로 번역되며 19세기에 출간된 소설 중 가장 많이 읽힌 『쿠오 바디스』는 시엔키에비치의 명실상부한 대표작이다. 폴란드의 삼국분할 당시 특히 제정 러시아의 식민지배에 고통 받는 폴란드의 상황을 네로에게 박해 받는 기독교인에 빚댄 민족주의 문학으로 평가받는 작품이다. 저자의 모국 폴란드가 삼국분할 하에 있던 1895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바르샤바(러시아령), 크라쿠프(오스트리아령), 포즈난(프로이센령)의 신문에 연재되었다. 단행본으로 출판된 것은 1896년 4월이다. 단행본으로 출판된 해에 미국의 제레미 커튼(Jeremiah Curtin)이 번역하였고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며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그리고 폴란드어 초판의 간행에서 10년도 안 되는 사이 30개 언어로 번역되며 영미에서만 80만부 이상이 팔렸

다(久山宏一 2012: 31-48; 八木光昭 1987: 13).

시엔키에비치의 이러한 국제적인 명성은 미국의 번역가 제레미 커튼(Jeremiah Curtin, 1846-1916)의 공헌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민속학자이자 언어학자인 커튼은 수많은 언어학, 민속학 연구서를 저술하기도 하였으나 무엇보다 시엔키에비치 작품의 영어 번역자로 명성이 알려져 있다. 제레미 커튼이 시엔키에비치의 작품을 번역하게 된 계기와 두 사람 사이의 친분 관계는 커튼이 남긴 다량의 메모, 출판사와 주고받은 편지, 커튼의 아내 알마(Alma)의 일기, 1898년 뉴욕 월간지 *The Century*에 커튼이 직접 기고한 글 ‘The Author of *Quo Vadis*: My Acquaintance with Sienkiewicz’ 등을 통해 비교적 상세히 알려져 있다.

제레미 커튼은 1859년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면서 언어에 큰 관심과 재능을 보였다. 그리스어, 라틴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를 정규 수업에서 배웠고 아이슬란드어, 스웨덴어, 덴마크어, 핀란드어는 독학으로 공부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 러시아어를 시작했고 게일어에도 능숙했다. 졸업 후 뉴욕의 법률계에서 일하면서 남북전쟁 기간 중인 1863년 후반부터 1864년 봄까지 뉴욕에 정착한 러시아 함대를 방문하게 되었고, 이 기간에 러시아 외교관이자 엔지니어인 키시킨(Kishkin)과 친분을 쌓으며 그에게 본격적으로 러시아어를 배웠다.<sup>5)</sup> 커튼이 시엔키에비치의 작품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순전히 우연이었다. 1888년 위스콘신의 집에 잠시 머물 때 커튼은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폴란드 잡지를 읽고 있는 폴란드 인을 만나 그에게 무엇을 읽고 있는지 물었고 그 폴란드인은 열정적으로 잡지에 실린 시엔키에비치의 소설에 대해 이야기하며 연재물을 보여주었다. 커튼은 흥미를 갖고 바르샤바에 삼부작 세트를 주문했고, 1888년 여름부터 『불과 검』 번역을 시작으로 시엔키에비치의 작품들을 잇달아

5) 커튼은 러시아문학을 매우 사랑했고 러시아 문인들과의 친분도 두터워 톨스토이 등과 직접 만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때문에 러일전쟁이 시작되자 미국 정계가 일본의 승전을 원하는 분위기로 흐르는 것을 매우 우려하여 자신의 적극적인 팬임을 자처하기도 했던 루즈벨트를 만나 설득을 시도하고 문인들을 중용하여 러시아의 승전을 응원하기도 했다. 따라서 시엔키에비치를 만나기 위해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그를 환영하는 분위기에 곤란해 하며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Segel 1965: 205-210).

번역하게 되었다(Segel 1965: 190-192).

커튼의 번역에 대해 당시의 평론가들은 “커튼은 단순한 번역자가 아니다. 그는 뛰어난 언어학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든 고향에 있는 것과 같았다. 그는 문어로 쓰인 슬라브어의 관용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언의 구어에도 익숙했다. 여러 나라들의 신화와 민속학에 대한 그의 지식과 연구는 번역이라는 일에 특히 적합했다.”(McIntyre 1898: 8)라며 극찬하였다.<sup>6)</sup> 커튼의 번역에 대한 신뢰와 개인적인 친분에서 시엔키에비치는 『십자가의 기사(Krzyżacy)』(1900)를 제외한 모든 저작의 영어 번역권과 드라마 각색권을 커튼에게 주었다(Segel 1965: 198). 하지만 미국에서 시엔키에비치의 영역본은 국제적인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했다. 커튼과 그의 번역물을 출판한 리틀 브라운(Little, Brown)이 배타적 판권과 번역권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sup>7)</sup>. 커튼의 『쿠오 바디스』 번역 이후 최소한 34개 미국 출판사들과 44명의 번역자들이 시엔키에비치의 소설을 영어로 번역, 출판했고 『쿠오 바디스』의 경우 60개 이상의 버전이 미국에서 출판되었다. 1915년까지 『쿠오 바디스』는 150만부 이상이 팔렸고 커튼의 영역판을 출판한 리틀 브라운에서도 12달러짜리 고급 양장본부터 25센트짜리 종이표지판까지 다양한 버전으로 번역판을 편집, 출판하였다(Miko 1991: 422-424).

## 2.2 일본에서의 『쿠오 바디스』 번역

『쿠오 바디스』가 일본에 처음 소개된 것은 1897년 7월로, 우에다 빈(上田敏)이 『제국문학(帝國文學)』에 실린 「독서계의 근간서(讀書界の近刊書)」라는 글에서 미국의 베스트셀러 1위 소설이며 로마 제정의 사치와 향락, 초대 기독교가 받는 박해를 그린 이야기라고 짧게 소개하였다<sup>8)</sup>. 그 후 1899 우치무라 간

6) 그의 번역 작품들에 대한 이러한 평가가 공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미국의 비평가들은 시엔키에비치 작품의 최초 영어 번역자인 커튼이 미국인이라는 사실에 기뻐했고 영국에서 번역된 번역작들에 비해 덜 비판적이었다(Segel 1965: 205).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 영어로 번역된 대부분의 이른바 ‘세계문학’ 작품들이 영국에서 먼저 번역되어 미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먼저 영역된 『쿠오 바디스』에 미국인들은 큰 자부심을 느꼈던 것이다.

7) 세계 저작권 협약인 베른협약에 미국이 가입한 해는 1989년이다.

조(内村鑑三)가 주재하는 잡지 『동경독립잡지(東京獨立雜誌)』(23호, 2.25)에 S.S라는 필명으로 「쿠오 바디스를 읽다(『クオ、バデス』を讀む)」라는 글이 줄거리와 더불어 게재되었다. S.S는 우치무라 간조 문하의 저널리스트 사토 메이요(左藤迷羊)이다. 그가 읽은 영역본은 *How I became a Christian* 등 여러 기독교 사상서를 영어로 집필하고 강연활동을 하여 유럽과 미국에 이름이 알려진 기독교 사상이 우치무라 간조에 영역자 제레미 커튼이 직접 기증한 책으로, 그것을 메이요가 물려받아 읽은 것이다(八木光昭 1987: 10-11).

이후 일본에서 『쿠오 바디스』는 부분역, 초역, 전역, 완역, 개역 포함하여 1900년대에 3편, 1910년대에 15편, 1920년대에 6편, 1930년대에 1편, 1940년대에 2편이 번역되었다(久山宏一 2012: 33).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번역으로는, 최초로 『쿠오 바디스』 전편(全篇)을 번역한 마쓰모토 운슈(松本雲舟)의 『어디로 가나(何處に往く)』(전편 1907.12, 후편 1908.4, 昭文堂)<sup>9)</sup>와, 영어 번역본을

- 8) 일본의 일반인들에게 폴란드라는 국명이 처음 알려진 것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서양사정』을 통해서일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정치에 대해 기술하며 단 한 곳에서 폴란드를 언급하기만 했을 뿐, 보다 널리 각인시킨 것은 도카이 산시(東海散士)가 쓴 『가인지기우(佳人之奇遇)』(1885)의 공적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제2편에 폴란드가 삼국으로 분할되어 쇠퇴하게 된 역사가 쓰여 있는데, 1794년 폴란드 국민군을 지휘하여 분할반대운동을 전개하다 러시아군에 체포되기도 했던 실존 인물 고세쓰코(高節公; 코시치우스코 Tadeusz Kościuszko, 1746-1817)의 이야기나 폴란드의 독특한 정치체제인 선거를 통한 왕의 선출, 만장일치제 등에 대해 비교적 정확히 설명하며 폴란드 패망의 원인과 연결 짓고 있다(東海散士 2006: 115-116, 초판은 1885). 『가인지기우』는 8권 16편 전체에 ‘망국민’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여 위정자의 사리사욕 추구를 비판하고 전 세계 약소국과 약소민족을 약탈하는 제국주의를 규탄하는 작품이다. 영국에서 독립한 미국에서 시작해, 폴란드, 아일랜드, 헝가리 등의 유럽 국가를 거쳐 아이티, 도미니카, 멕시코 등 중남미는 물론, 베트남, 버마, 인도, 이집트, 마다가스카르, 알제리, 라이베리아, 수단 등의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 터키나 지금의 우크라이나, 체첸 지역과 같은 중앙아시아의 여러 약소민족에 이르기까지 주인공 산시를 통해 제국주의가 억압하는 수많은 약자들의 참상을 폭로하고 있다(표세만 2017: 347-355).
- 9) 1907년과 1908년의 번역본 제목은 『何處に往く』였으나 1915년 개역판부터는 『何處へ往く』로 바뀌었다. 마쓰모토의 번역본은 『쿠오 바디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번역하기는 했지만 서사의 흐름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묘사 등은 생략하여 번역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초역(抄譯)이라 할 수 있으나 서사의 진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충실



충실히 완역한 기무라 기(木村毅)의 번역본 『쿠오 바디스(クオ・ワヂス)』(1924, 新潮社)라고 할 수 있다. 마쓰모토의 번역본은 출간 직후부터 1910년대 까지 이례적인 붐을 일으키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 “어디에 가?(何處へ行く)”라고 물으면 “쿠오 바디스”라고 대답하는 것이 유행일 정도였고 『청년이여 어디로 가나』, 『일본이여 어디로 가나』 등의 표제를 붙인 서적들이 대거 출판되기도 하였다(松本雲舟 1942: 44-48). 이는 마쓰모토의 번역본이 최초의 전역본이기도 하지만 당시 일본 문학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던 다카야마 초규(高山樗牛)가 『쿠오 바디스』 영역본에 대해 이례적으로 상찬하는 서평을 씀으로써 젊은 문학가들은 물론이고 문단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메이오와 친분이 있던 다카야마는 그에게 영역본을 빌려 읽은 후 소설에 대한 감흥과 더불어 일본의 젊은 소설가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다소 고압적인 비평을 썼다. “소설이 이 정도에 이르면, 역사보다 확실한 사실 이요 철학보다 현명한 지식이 된다...소설가 제군이여, 상당히 실례되는 말이겠으나, 제군들은 소설이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高山樗牛 1923: 770-771, 초판은 1900)<sup>10)</sup>. 이 비평의 출간 직후 서양서 전문 서점인 마루젠(丸善)에는 영역본 『쿠오 바디스』 주문이 쇄도하여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다<sup>11)</sup> 한다(八木光昭 1987: 12). 다카야마 초규의 비평이 일본에서의 『쿠오 바디스』 유행에 끼친 영향은 마쓰모토의 1907년 『쿠오 바디스』 번역본인 『어디로 가나』 전편(前篇) 서문에 “『쿠오 바디스』는 이미 수년 전, 고 다카야마 초규씨에 의해 널리 세상에 소개되었다”고 언급되어 있을 정도였다.

마쓰모토의 번역본이 큰 관심을 끌며 인기를 모은 또 다른 이유로 일본 근대문학의 선각자이자 지도자 역할을 한 쓰보우치 쇼요(坪内逍遙)가 그의 번역본에 두 차례에 걸쳐 추천사를 씀으로써 번역본의 가치를 보증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sup>11)</sup> 쓰보우치는 1915년 개역판 서평에서 “육과 영, 회

히 번역하였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저본을 빠짐없이 충실히 번역한 완역(完譯)이나 필요한 부분만을 추려서 간략하게 번역한 초역과 구분하여, 일부 묘사나 설명은 빠져 있으나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번역한 번역본을 ‘전역(全譯)’으로 표기하였다.

10) 본 논문에서 일본어 문헌의 직접 인용은 모두 필자의 번역임.

11) 1907년에 출간된 초판의 전편(前篇)과 1915년의 개역판에 쓰보우치의 서평이 실려 있다. 서평 작성일이 전편의 경우 메이지 40년(1907) 11월 하순으로, 개역판의 경우 메이지 41년(1908) 4월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 후편에 실을 예정이었던 서

의와 신앙, 이기와 이타, 본능과 본무의 결투사라고도 보아야 할 이 소설이 우리 독서계에 널리 환영받아야 한다고 믿는다”고 하며 마쓰모토의 번역에 대한 높은 평가와 더불어 원작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물론 1905년 시엔키에비치의 노벨상 수상 소식으로 그의 작품이 더 조명 받았다고 할 수 있으나 구야마(久山宏一 2012: 32)는 ‘노벨상 수상작’이라는 타이틀은 적어도 20세기 초반의 일본에서 소설의 인기를 높이는 요인이 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1940-42년이 되어야 비로소 『노벨상문학총서(ノーベル賞文學叢書)』 전 19권이 간행되는 것으로 보아 노벨상 수상이 소설의 인기에 유효한 기능을 한 것은 1930년대 이후라는 것이다.

1920년대에 『쿠오 바디스』를 완역한 기무라 기는 번역가이자 메이지시기 문화, 문학 연구가답게 번역본 서두에 시엔키에비치의 소설과 폴란드 역사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제를 싣고 단순히 종교소설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쿠오 바디스』는 로마의 폭군 네로 시대 초기 기독교도의 순교를 그린 이야기이다 ... 그러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거기에는 쟁투가 있다. 정의에 대한 박해가 있다. 그리고 최후에는 정의의 승리가 있다. 폴란드 검열관의 엄중한 감시 아래에서 러시아나 프로이센의 억압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것은 폴란드 작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것이 시엔키에비치가 그의 눈을 과거로 향한 이유이다(木村毅 1928: 5).

### 2.3 한국에서 번역된 『쿠오 바디스』

한국에서는 백대진이 처음으로 『쿠오 바디스』를 번역하여 『夜半의 警鐘』이라는 제목으로 잡지 『신문계』(1916. 6, 39호)에 발표하였다<sup>12)</sup>. 백대진은 번역 서문에서 로마 쇠망의 원인을 신선하고 청쾌한 기독교 사조로 숙련되게 그린 이 책의 일독으로 신의 지식 됄을 각성하는 동시에 기독교가 천추 만세에 비추기를 합장하여 기도하였다고 밝히, 폴란드의 역사적 배경이나 세계문학으로서

평을 개역판에 실은 것으로 보인다.

12) 『夜半의 警鐘』은 필자가 ‘백낙천자(白樂天子)’라는 필명으로 되어있다. 한국의 폴란드문학 번역사를 개관한 이민희(2002)와 최성은(2014)은 김병철(1975)을 인용해 신원미상의 역자라고 하였으나, 주승택(1996)과 김복순(1999)은 백대진이 ‘백낙천자(白樂天子)’ ‘낙천자(樂天子)’ 등의 필명으로 활동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의 의의보다는 종교적 감흥이 번역의 계기임을 밝히고 있다<sup>13)</sup>. 백대진은 서문에서 상중하 세 편으로 되어있는 것을 상하 두 편으로 역출하겠다고 밝혔는데, 본문을 상중하로 나누어 번역한 것은 마쓰모토의 번역본이 유일하며, 본문의 비교에서도 마쓰모토 운슈의 1915년 개역판을 저본으로 충실히 번역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백대진의 하편 번역은 발견되지 않았고 상편은 마쓰모토 개역판의 상편 1장 「저택(邸宅)」, 2장 「방문(訪問)」을 각각 번역한 ‘베트로뉴스의 집’과 ‘보리밭’ 두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91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 한국에서 번역된 세 편의 『쿠오 바디스』 가운데 백대진의 번역을 제외한 두 편의 번역이 모두 홍난파의 번역이며 1921년 광익서관에서 출판된 번역본은 식민지 시기 유일한 『쿠오 바디스』 번역 단행본이자 전역본이다. 김병철(1975: 557)은 두 편의 홍난파 번역에 대해, 일본어 저본은 찾지 못하였으나 『매일신보』에 37회 연재 후 중단한 번역은 완역의 시도였고 1921년 광익서관에서 출판된 단행본은 내용을 많이 축소한 초역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홍난파의 두 번역본은 저본이 모두 일본어 번역본이기는 하지만 각기 다른 일역본을 저본으로 충실히 번역된 것이다. 본 연구의 문헌조사를 통해 특정한 홍난파 번역본의 일본어 저본과 한국어 번역본의 번역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 홍난파의 『쿠오 바디스』 번역 저본과 번역 양상

#### 3.1 『매일신보』 연재분 「어디로가나?」

홍난파가 처음 『쿠오 바디스』를 번역한 「어디로가나?」는 『매일신보』에 37회(1920.3.20.-1920.5.5)까지 연재된 후 중단되었다. 『매일신보』 연재분의 일본어 저본은 마쓰모토 운슈(松本雲舟)의 『어디로 가나(何處へ行く)』(1915, 三陽

13) 원문은 다음과 같다. “羅馬衰亡의 原因을 엿지 그다지 拱手同感케 記錄호엿던고! 新鮮호며 또호 淸快호 基督教思潮가 爛熟호 希臘羅馬의 文明을 壓倒호는 그 光景...余는 本書一讀으로 말미암아 神의 子됨을 覺醒호는 同時에 基督教가 千秋萬世에 빛잇기를 掌을 습호고 祈禱호엿도다”(백대진 1916)

堂)이다. 마쓰모토는 1907년과 1908년에 각각 전편과 후편으로 『쿠오 바디스』를 전역한 바 있다. 1915년 개역판 서문에서 그는 첫 번역본이 지나치게 종교적인 감흥에 취해 번역했고 일부 오역이 있어 개역한다고 밝히고 있다. 홍난파의 『매일신보』 연재분과 마쓰모토의 1907년 번역본, 1915년 개역판 본문을 비교하면 홍난파의 번역이 마쓰모토의 1915년 개역판을 저본으로 번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無限한柔和가울스스의얼굴에빛최였다그러나그心情을감초라는듯이우러안져서 『그러면監督에게갓다오겠습니다』 하고말했다  
악테아는리리아를 꺾여안고울었다皇帝의豪華榮華의집보다더나흔幸福스런곳이잇슴을찌다렀다光明의門은열렸지만은自己는그문지방(闕)을넘을價値가업는줄을찌닷고두가지의熱淚는그의眼臉에번쩍이였다  
리리아는全心の愛를傾注히던폼포니아의집으로부터멀니져나감을깊히슬퍼했다(홍난파 1920.4.11: 1면)

無限の柔和は、ウルススの顔に輝いた。けれども其心情を隠すやう跪いて、では監督の處に往つて參ります」と言つた。  
アクテアはリリアを搔き抱いて泣き出した。皇帝の豪華榮華の家に勝れる幸福な場所があることを悟つたのである。光の門は開かれたが、自分は其の闕を跨ぐ値のないことを感じて、二つの涙は其の垂れた眼臉に輝いた。  
リリアは全心の愛を注ぐボムポニアの家族から遠ざかることを深く悲しんだ。(마쓰모토 1915: 74)

無限の柔和は、ウルススの顔に輝いて見える。けれど其の心情を隠して跪いた。  
「では監督の處に往つて參ります」と言ふ。  
アクテアはリリアを搔き抱いて涙を流す。皇帝の豪華榮華の家に勝れる幸福の場所あるを、その心に覺えたのである。  
リリアは全心の愛を注ぐボムパニアの家族に遠ざかるのを深く悲しんだ。(마쓰모토 1907: 57)

위 인용문에서 밑줄친 문장이 마쓰모토의 1915년 개역판에 새로 첨가된 문장이며 홍난파의 번역본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본과 영역본이

74장,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마쓰모토의 1915년 일역본은 한 권에 상편 17장, 중편 20장, 하편 30장 총 6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쓰모토는 서사 전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세부적 배경 묘사, 파브리키우스와 베이벤토의 일화나 전차경주에 대한 페트로니우스와 비니키우스의 대화 등, 주요 등장인물의 특징이나 배경, 관련 사건을 서술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내용들을 삭제하였고 이는 홍난파의 번역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sup>14)</sup>. 홍난파는 일본어 저본에 충실하게 번역을 시도했으나 완역하지는 못하고 상편 13장 「교사(敎唆)」 일부까지만 번역하였다. 홍난파의 『매일신보』 번역 목차와 마쓰모토의 상편 목차를 비교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홍난파의 『매일신보』 번역본과 마쓰모토의 일본어 번역본 목차 비교

| 매일신보<br>연재회수 | 홍난파의 한국어 번역본          | 마쓰모토의 일본어 번역본 |
|--------------|-----------------------|---------------|
| 1            | 一 邸宅(一의 一)            | 上篇<br>一 邸宅    |
| 2            | 一 邸宅(一의 二)            |               |
| 3            | 一 邸宅(一의 三)/二 訪問(二의 一) |               |
| 4            | 一 邸宅(一의 三)            | 二 訪問          |
| 5            | 二 訪問(二의 三)            |               |
| 6            | 二 訪問(二의 四)            |               |
| 7            | 二 訪問(二의 五)            | 三 召喚          |
| 8            | 三 召喚(三의 二)            |               |
| 9            | 三 召喚(三의 三)            | 四 饗宴          |
| 10           | 四 饗宴(四의 一)            |               |
| 11           | 四 饗宴(四의 一)            |               |
| 12           | 四 饗宴(四의 三)            |               |
| 13           | 四 饗宴(四의 四)            |               |
| 14           | 四 饗宴(四의 五)            |               |
| 15           | 四 饗宴(四의 六)            |               |
| 16           | 四 饗宴(四의 七)            |               |
| 17           | 四 饗宴(四의 八)            | 五 煩悶          |
| 18           | 五 煩悶(五의 二)            |               |
| 19           | 五 煩悶(五의 三)            |               |
| 20           | 五 煩悶(五의 四)            | 六 別離          |
| 21           | 六 別離(六의 二)            |               |

14) 원본의 구성과 내용은 최성은(2013)의 번역을 참고하였다.

|    |                           |          |
|----|---------------------------|----------|
| 22 | 六 別離(六의 三)                |          |
| 23 | 六 別離(六의 四)/七 奪取(七의 一)     |          |
| 24 | 七 奪取(七의 一)                | 七 奪取     |
| 25 | 八 搜索(八의 一)                |          |
| 26 | 八 搜索(八의 二)                | 八 搜索     |
| 27 | 八 搜索(八의 三)                |          |
| 28 | 九 搜索(九의 一)                |          |
| 29 | 九 劃策(九의 二)                |          |
| 30 | 十 劃策(十의 三)                | 九 畫策     |
| 31 | 十 劃策(十의 二)                |          |
| 32 | 十 似而非哲學者(十의 三)            | 十 似而非哲學者 |
| 33 | 十一 報告(十一의 二)              |          |
| 34 | 十一 報告(十一의 三)              | 十一 報告    |
| 35 | 十一 報告(十一의 四)              |          |
| 36 | 十二 奸計(十二의 二)              | 十二 奸計    |
| 37 | 十二 奸計(十二의 三)/十三 教唆(十三의 一) | 十三 教唆    |
|    |                           | 十四 力士    |
|    |                           | 十五 彼得의說教 |
|    |                           | 十六 追跡    |
|    |                           | 十七 活劇    |

『매일신보』에 연재된 「어디로가나」는 비니키우스가 사기꾼 지로(킬로)의 안내로 은닉생활을 하던 리기아를 찾아내는 것에서 연재가 중단된다. 처음 연재가 시작되기 전날인 1920년 3월 19일 1면의 연재 예고 기사 「小說連載豫告, 歷史宗教小說 어디로가나?, 波蘭文豪 시엔키에비츠 原作, 蘭坡 洪永厚 新譯」에서는 「어디로가나」를 역사 및 종교소설이며 시엔키에비치의 걸작으로 세계 도처에서 환영받는 작품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조선 문예계 초유의 명역인 동시에 현시 조선청년남녀에게 무상의 위안이 될 것이라며 애독을 권장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쿠오 바디스』 유행을 염두에 두고 『매일신보』가 상업적 목적에서 이 번역을 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연재가 중단된 뒷부분에서는 네로가 로마 시내를 불태우고 시민의 반발과 폭동을 잠재우기 위해 기독교도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잔인하게 고문하고 갖가지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 당시 로마정권의 실정을 고발하는 내용과, 주인공 비니키우스가 권력층의 폭압성을 깨닫고 종교와 사랑으로 고난을 극복한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3.1 운동 1주년이 되는 시점에 “고독에 방황하고 암흑에 눈물 흘리는 청춘남녀”<sup>15)</sup> 들

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 연재된 「어더로가나」는 특히 『쿠오 바디스』가 순수한 종교 소설이 아니라 폴란드의 삼국 분할에 대한 비유적 역사 소설이라는 점에서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의 편집 방침에 어긋나 중단시킨 것이 아닐까 추정해 해 볼 수 있다.

### 3.2 단행본 『어더로가나』

홍난파의 『쿠오 바디스』 번역 단행본은 1921년 광익서관에서 출판되었고 일본어 저본과 동일하게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어 저본은 구와야마 세이세이(桑山菁々)의 『어디로 가나(何處へ行く)』(아카기 총서(赤城叢書) 제49편, 1914, 赤城正藏)이다. 홍난파는 서문에서 『쿠오 바디스』를 우리말로 옮기는 것이 처음이라고 밝혔는데 아마도 『매일신보』 번역을 중도에 그만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문에서 출판계의 사정상 일본어 번역본과 영어 번역본을 대조하여 간략히 초역하였다고 밝혔으나, 홍난파 본인의 초역이 아니라 구와야마가 초역한 번역본을 한국어로 충실히 번역한 것이다.

홍난파의 번역과 구와야마의 번역본 본문을 비교해 보면 홍난파가 일본어 저본을 충실히 번역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豪奢와榮華를極하던羅馬의 貴族들은放縱한生活노그날<의快樂을貪하기에無暇하였다페트로누스는前夜의宴會에서夜深하야도라온後남어지疲勞로因하야日高三丈하도록寢床을떠나지안었다。이윽고起寢한페트로누스는奴隸들에게擁護되야、肥大한그의裸體에香油를발을때에朝風이산들<하게身邊으로부터오매觸鼻하는香氣는그의心神을愉快히하였다。  
그때에甥姪되는에니투스가오래간만에차저왔다。에니투트는血氣旺盛하고風采조흔美男子인바오래동안亞細亞方面에出陣하였다가도라왔던터이다。  
『아젓시、그동안 安寧히계섯슴닛가』  
『오-너왔넌、그래 別노 꿈生이나하지안엇넌』

15) “...一篇으로말하면歷史小說이며宗教小說인同時에男女品性的戀愛에關한야明晰한解析과周到한觀察을함에더욱마음이슬니었다...本是淺見薄識으로더구나拙筆인넌가 이와같은名作을當突히翻譯한다함은藝術의良心이나原著者에게對한야罪를避할길이 없지만은孤獨에彷徨한고暗黑에悲泣한朝鮮青年을爲한여는적지안은慰安이되리라 고生覺한야敢히붓을들기始作한것이다”(홍난파 1920.3.19: 1면)

戰爭하던이악이와氣候에關한이악이가한판숫나자, 페트로누스는다시금正色하야무렀다(홍난파 1921: 1)

豪華を極めたローマの貴族達は放縱な日を送つて居た。ペトロニウスも昨夜の宴會で今朝はぐつすり寝込んで終つた。日がもう餘程高くなつた時やつと寢床を離れて例の奴隸達に香油を運ばせた。肉付きの好い肌を朝風に思ふ存分吹かせて香油を擦りこむとそれが魂の底まで浸つてゆく様で又うつとりとする。

所へ甥のヴェニチウスが久しぶりで訪ねて來た。ヴェニチウスは華やかな若者で長い間アジアの方面へ出陣して居たのである。

「叔父さま。御變理もありませんか。」

「いや相變らずさ。」

戰爭の話や氣候の話が一通り済むとペトロニウスは急に氣を更へて

(구와야마 1914: 1)

구와야마의 『어디로 가나(何處へ行く)』는 주인공 비니키우스와 리기아를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하되 배경과 사건의 전개 과정이 대폭 축소되어 있다. 그로 인해 리기아의 갈등, 비니키우스의 지나친 집념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지고, 바울과 베드로 등의 가르침, 기독교인들이 기꺼이 순교하고자 하는 종교적 헌신의 숭고함 또한 전달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살인하는 장면 등 네로의 폭정이 간단한 설명으로 대체되어 있다. 이와 같은 축약으로 인해 배경이나 원인에 대해 상당한 설명이 필요한 중요한 사건의 경우 원작과 다르게 창작되거나 의도적으로 오역된 경우도 저지 않다. 특히 페트로니우스가 자신이 주최한 마지막 만찬에서 한 연설, 천천히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과정은 팔에 독을 주입하여 사망했다는 식으로 짧게 처리되기도 하였다. 저본에 비교적 충실하게 번역된 마쓰모토의 번역본을 한 차례 번역하기도 했던 홍난파가 굳이 짧게 축약된 구와야마의 번역본을 저본으로 번역한 이유는 그가 서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당시의 ‘어쩔 수 없는 출판계의 사정’이 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sup>16)</sup>. 개화기와 식민지 시기를 통틀어 가장 많은 외국 소설을

16) “나는우리나라 青年에게이와갓흔世界的名著를紹介하게됨을無上의光榮으로生覺하는同時에...우리나라出版界의엇지할수업는事情에거리껴여全文을그대로다紹介치 못하고, 簡略히抄譯하야써原文의璧玉을瓦礫으로만들게됨은, 實노罪를避할길이업다



번역한 것은 최남선으로, 세 편의 동화와 아홉 편의 소설을 번역하였다. 하지만 단행본으로 출판된 것은 신문관에서 간행된 『걸리버 여행기』 뿐이고 이마저도 50쪽을 겨우 넘는다. 나머지는 자신이 창간한 잡지 『소년』, 『아이들 보이』, 『붉은 저고리』, 『청춘』지 등에 게재되었고 따라서 매우 짧게 줄거리를 전해주는 데 그치고 있다. 최남선의 이러한 번역이 조선의 미래를 책임질 소년에 대한 교육과 계몽, 정보 전달에 역점을 둔 것이었다면, 홍난파는 ‘세계문학’의 소개에 자신의 번역 목적을 두고, 장편 번역서는 물론이고 중, 장편의 창작 소설조차 일반적으로 출판되어 읽히지 않았던 당시의 출판계 상황을 염두에 두고 비교적 짧게 축약된 구와야마의 번역본을 저본으로 선택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4. 홍난파 『쿠오 바디스』 번역의 특징

홍난파의 『쿠오 바디스』번역에 나타난 번역 방법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저본에 매우 충실한 번역이라는 점이다. 아래의 일본어 예문과 홍난파의 예문을 비교해 보면 한자어 하나하나 충실히 축자역(逐字譯)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갓치하야 慰安을 求하고자하는 喜笑가온갓 現實을 淨化식였다. 利慾에 焦悶하는온갓 煩惱와 榮達에 奔走하는온갓 醜骸는、忽然히 其影子를 消失하고、紫雲이무럭 피어올르는곳에는、荊冠에 榮光있는 生涯를 依託한 聖者の 姿가 隱然히났타났다(홍난파 1921: 26)。

斯くして慰安を求むる喜にの笑ひが一切りの現實を淨化して終わった。利慾に悶える凡ての煩惱と榮達に奔る凡ての醜骸は忽然として影をひそめ紫雲ゆるやかに窓に映れば荊冠に榮ある生涯を托した聖者の姿はさながらに來迎する(구와야마 1914: 26)。

이와 같이 저본에 충실한 번역은 『쿠오 바디스』 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번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生覺한다”(홍난파 1921, 서문)

홍난파 번역의 두 번째 특징으로 영역본을 반드시 참고한다는 점이다. 『쿠오 바디스』 외의 다른 번역에서도 영역본을 참고하여 일본어 번역가가 오역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인명과 지명 등 고유명사 뒤에 영어명을 병기하기도 하였다. 『매일신보』의 번역본에서는 영역본을 참고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으나 단행본 번역의 마지막 장에서는 <그림 2>와 같이 고유명사 일람표를 확인할 수 있다. 마쓰모토와 구와야마는 일역본에서 고유명사에 영어를 병기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일본어 번역본에서 영어를 병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홍난파가 영역본에서 직접 고유명사를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홍난파가 유학했던 1910년대까지 마쓰모토의 번역본은 큰 인기를 끌고 있었고 마루젠을 통해 커튼의 영역본이 대량으로 수입되었기 때문에 홍난파가 영역본을 입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림 2> 홍난파의 『어대로그나?』 고유명사 일람표

| 本篇中の人名과地名        |            |           | 本篇中の人名과地名 |          |           |          |       |
|------------------|------------|-----------|-----------|----------|-----------|----------|-------|
| A.               | Cyprus     | 차이푸로스     | L.        | Lienus   | 리냐스       |          |       |
| Achaea           | 악 카 아      | D.        | Dioannes  | 디오안네스    | S.        | Seneca   | 센 에 카 |
| Acta             | 악 테 아      | Dionysus  | 디오니스      | S. Iason | 살 룬       |          |       |
| Agrippa          | 아그립파       | Domi-     | 도미오       | Syrian   | 씨 리 안     |          |       |
| Antium           | 안 퀴 움      | E.        | Emilio    | 유 니 세    | T.        | Tiber    | 티 버   |
| Aristotle        | 아리스토텔      | G.        | Gallian   | 갈 리 안    | Tigellius | 티 겔 리 우스 |       |
| Aulus            | 아 울 루스     | Ginens    | 길 렌스      | Titus    | 티 투스      |          |       |
| B.               | Beneventum | 베 네 벤툼    | H.        | Horace   | 호 래 스     | Troy     | 트 로 이 |
| C.               | Callina    | 칼 리 나     | Herodotus | 헤 로 독 로스 | U.        | Urban    | 우 르 안 |
| Carajenia        | 카 라 니 아    | Hereditus | 헤 레 디 투스  | Ursus    | 우 르 투스    |          |       |
| Carinae          | 카 리 네      | Homer     | 호 머       | V.       | Veronica  | 베 로 니 카  |       |
| Chilo, chiluides | 칠로·칠로니데스   | Hornae    | 호 레 스     | Vinifius | 비 니 피 우스  |          |       |
| Chrysothemis     | 크리소테미스     | I.        | Iris      | 아 이 리스   | Virgil    | 비 지 일    |       |
| Croto            | 크 로 토      | J.        | Judas     | 유 데      | THE END   |          |       |
| Cynaic           | 씨 니 익      |           |           |          |           |          |       |

구와야마의 일본어 번역본에서 ‘폼파니아(ボンパニア)’, ‘우르사스(ウルサス)’, ‘비니츄스(ヴィニチウス)’, ‘프라우츄스(プラウチウス)’ 등으로 발음되는 등장인물의 인명을 홍난파는 각각 ‘폼포니아’, ‘우르서스’, ‘베니튜스’, ‘플로투스’ 등 영어 발음에 가깝게 번역, 표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5. 결론

이상과 같이 홍난파의 『쿠오 바디스』는, 원본에 충실한 제레미 커튼의 영역본을 저본으로 일본의 마쓰모토 운슈, 구와야마 세이세이가 일본어로 번역한 중역본을 한국어로 번역한 삼중역이다. 『매일신보』 연재에서는 마쓰모토의 번역본을, 단행본에서는 구와야마의 번역본을 저본으로 충실히 축적하였다.

김병철(1975)의 연구를 비롯하여 최근의 근대 번역사 연구에서는 홍난파를 비롯한 1920년대 초반의 번역을 원문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해 번역한 초역(抄譯)이나 전체 내용의 줄거리만을 간단하게 번역한 경개역(梗概譯)이라는 이유로 혹은 일본을 통한 중역이나 삼중역으로 여러 차례의 굴절되어 원문으로부터 떨어진 번역이라는 이유로 텍스트 분석 등 연구 가치가 적은 것으로 취급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평가는 잘못된 저본의 추정으로 인해 번역 방법이 잘못 해석된 것이며, 일본을 통해 중역된 근대 시기의 번역은 바로 그러한 굴절 자체에서 오히려 연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하나의 원문이 첫 번째 번역을 통해 어떤 사회, 정치, 문화적 맥락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또 한 차례의 번역을 통해 첫 번째 번역과는 또 다른 어떤 방식으로 굴절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피고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에 바로 근대 번역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근대 번역사와 근대 번역물에 대한 평가를 위해 기존의 서지 연구를 재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홍난파의 다른 번역본에 대한 서지적 연구 및 번역의 계보 연구를 통해 홍난파의 번역과 1920년대 초반의 번역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를 이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병철 (1975)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김복순 (1999) 『1910년대 한국문학과 근대성』, 서울: 소명출판.  
 김양환 (2009) 『홍난파 평전 - 일제강점기의 삶과 예술-』, 서울: 남양문화.  
 김창욱 (2002) 「홍난파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음악사학보』 29: 177-198.

- 박진영 (2011) 「홍난파와 번역가의 탄생」, 『코기토』 71: 61-86.
- 박진영 (2013) 「번역가의 탄생과 문학청년 홍난파의 초상」, 『근대서지』 8: 181-202.
- 백대진 (1916.6) 「附錄 宗教小説, 夜半의 警鐘」, 『신문계』 39.
- 미술회 (편저) (1984) 「난파 작품 목록 ②」, 『나라사랑』 52: 169-172.
- 이민희 (2002) 「폴란드문학 번역사 개관」, 『비교문학』 28: 35-61.
- 이재춘 (1989) 「홍난파의 [허영] 연구」, 『우리말글』 7: 143-154.
- 이향 (2010) 「번역품질평가의 현황과 과제」, 『번역학연구』 11(2), 107-125.
- 이희정 (2007) 「1920년대 초기의 『매일신보』와 홍난파 문학」, 『어문학』 98: 239-268.
- 주승택 (1996) 「백대진 연구」, 『성곡논총』 27(4): 731-774.
- 최성은 (2005) 「[쿠오 바디스] 에 나타난 애국적 알레고리 연구」, 『동유럽발칸학』 7: 125-158.
- 최성은 역 (2013) 『쿠오 바디스』, 서울: 민음사.
- 최성은 (2014) 「한국에서 폴란드 문학 번역의 현황과 출판의 문제점」, 『통번역학연구』 18(2): 145-189.
- 표세만 (2017) 「도카이 산사(東海散士) [가인지기우](佳人之奇遇)의 조선 인식」, 『일본어문학』 75: 343-362.
- 홍난파 (1920. 3. 20-1920. 5. 5) 「어디로가나?」, 『매일신보』, 1면.
- 木村毅 (1928) 『クオ・ヴァヂス』, 東京: 新潮社.
- 久山宏一 (2012) 「日本における『クオ・ヴァヂス』: どのような文脈で受容されたか」, 『創価大学ロシア・スラヴ論集』, 5: 31-52.
- 桑山菁々 (1914) 『何処へ行く』, 東京: 赤城正蔵.
- 高山樗牛 (1923) 「小説の意義」, 斎藤信策 (編), 『樗牛全集第二卷 文芸評論』, 東京: 博文館, 770-771.
- 坪内逍遙 (1915) 「序」, 松本雲舟, 『改訳縮刷(クオヴァヂス) 何処へ行く』, 東京: 三陽堂.
- 東海散士 (2006) 「佳人之奇遇」, 大沼敏男, 中丸宣明 (編), 『政治小説集二』, 東京: 岩波書店, 1-618 (초판, 1885).
- 松本雲舟 (1907) 『何処に往く、前』, 東京: 昭文堂.

- 松本雲舟 (1915) 『改訳縮刷 (クオヴァヂス) 何処へ行く』, 東京: 三陽堂.
- 松本雲舟 (1942) 「クオヴァヂス翻訳当初の思い出」, 『書物展望』 138: 44-48.
- 八木光昭 (1987) 「ポーランド文学が日本近代文学に与えた影響」, 阪東宏 (編), 『ポーランド入門』, 東京: 三省堂.
- McIntyre, Marian (1898) *Henryk Sienkiewicz: The Author of "Quo Vadis"*, Boston: Little, Brown.
- Miko, Michael (1991) 'New Ligh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enryk Sienkiewicz and Jeremiah Curtin', *Slavic Review* 50(2): 422-432.
- Segel, Harold Bernard (1965) 'Sienkiewicz's First Translator, Jeremiah Curtin', *Slavic Review* 24(2): 189-214.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Genealogy of Translation of  
*Quo Vadis* by Hong, Nan-Pa**

Youn, Kyung-ae

(Yeungnam University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genealogy of translation from the original text to the English-Japanese-Korean translation, and also the characteristics of translation through the text comparison of the originals and translation into Korean, focusing on the bibliographic research revealing the original of *Quo Vadis* translated by Hong, Nan-Pa. As a pioneer in the Western music of modern Korea and a famous musician creating numerous masterpieces, Hong, Nan-Pa is also a translator who translated many world-famous great novels. Out of them, *Quo Vadis* was serially published till the 37th episode (March. 20th 1920 - May 5th 1920) in the *Maeil Shinbo* before it was ceased. In 1921, it was re-translated and published in book form. In the preceding research, Hong, Nan-Pa's translation was underestimated for reasons, e.g., his translation is excessively abbreviated not as a translation of the original text or English version, but as a second-hand translation by way of Japan. However,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s that contrary to the previous research, the translation of *Quo Vadis* by Hong, Nan-Pa should be evaluated as the modern translation faithful to the original rather than the translation like abbreviation or adaptation of the 1910s or the enlightenment period, cognizing the literary value of it as a religious and historical literary work and 'world literature' and also by referring to the English version.

▶ Keywords: Hong, Nan-Pa, Quo Vadis, Sienkiewicz, Meiji translation, Taisyo translation, Japanese-Korean modern translation

▶ 주제어: 홍난파, 일한 근대 번역, 시엔키에비치, 쿠오 바디스, 메이지, 다이쇼

윤경애

영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박사후 연구원

yka9511@gmail.com

관심분야: 근대 일한 번역, 메이지시대 번역사, 다이쇼시대 번역사

논문투고일: 2019년 4월 29일

심사완료일: 2019년 5월 25일

게재확정일: 2019년 5월 28일